

협회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그간 추진사업평가 그리고 미래)

※ 본 글은 협회 회원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협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게 된 배경과 그 진행상황 및 논의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제1차 T/F팀 회의 전경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선진화, 공공용수의 수질보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3대 목적을 가지고 수도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특수법인이다. 협회가 설립될 때에는 수도사업자(민간사업자 제외)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률에 따라 당연 회원이 되며 상하수도분야 기업, 단체, 개인 또한 협회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회의 운영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사업수입금,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지원으로 조달하게 되어있다.

그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과정 및 사업추진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2001년 11월 창립총회에서 당시 서울시장을 맡고 계신 고건 전 국무총리를 초대 협회장으로 하는 임원단 57인(사업자

이사 28인, 기업·단체·개인 이사 28인, 감사1)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상하수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협회 기관구성을 갖추었으며 2002년 1월 법인등기, 2002년 3월 사무국을 구성(총장1, 직원12)하여 정식 업무를 개시하였다. 2004년 6월말 현재 총1,007회원(사업자회원 345, 단체회원12, 기업회원200, 개인회원450)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이 정관개정을 통해 당연직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어 물과 관련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조직이 되었다.

협회의 설립은 수도선진국인 일본의 수도협회(JSWA), 하수도협회(JSWA)와 미국 수도협회(AWWA)를 모델로 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수질, 시설 및 정서가 비슷한 일본이 주 벤치마킹 대상이었으며 수도법 협회 조항 역시 상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회원이 되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였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시행령 39조에서 규정한 업무와 정관상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개년간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① 상하수도정책 및 운영 관련사업으로 상하수도정책방향설정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환경부와 ECO-2전문가포럼을 운영, 상수도 총13개(상수도4, 하수도5, 지하수분과4)주제를 선정하여 환경부 정책개발시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고 하수도 연찬회사업 등을 통하여 정부의 하수도정책설명 및 현안과제에 대하여 관·산·학의 정책토론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 및 물질악 실천방법 제공 등 물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한 어린이 물 절약 교재 및 교사매뉴얼을 제작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의 현안문제인 요금현실화 문제에 대해 현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였고 연구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② 상하수도에 관한 통계 및 자료발간 사업으로 해외 상하수도기술서적을 매년 6권씩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최신 해외기술자료를 번역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③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으로 오늘날 일본을 수도선진국의 반열에 있게 한 일본수도협회 검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한 국내 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국내 상하수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일본 JETRO의 수탁을 받은 일본수출 가능한 국내 상하수도 제조기업 조사연구, 서울시 및 토지공사 등에서 수탁 받은 주택단

지 내 적정 상수량 결정에 관한 연구, 가정하수도관 연결실태 및 상수도공사 적정품 제정 연구 및 냄새 제거를 위한 입상활성탄 적용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④ 상하수도 시설기준 및 표준시방서 연구·보급사업으로 1997년 개정 이후 선진기술 및 IT분야 기술정보 국내도입 추진을 위한 수도사업자, 학계, 기술자가 참여하여 상·하수도 시설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시방서 연구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⑤ 상하수도가자재의 표준화 및 검사, 인증사업은 국내 검인증사업도입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규격대비 동등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를 목표로 마스터플랜수립, 규제제정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 및 인력풀 구성, 표준화 심의위원회구성을 하였으며 정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필요한 규격기준부터 우선 제정하였다. 2004년 87종, 2005년 100종을 목표로 규격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⑥ 상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사업은 환경부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 협회가 “기타여과방식 및 추가소독능 인증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신청에 필요한 사업자회원 정수장에 대하여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사전기술지원을 통해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태풍 수해 상하수도시설 및 사업자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술반을 편성하여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⑦ 상하수도 홍보 및 교육사업은 대표적으로 WATER KOREA행사를 들 수 있다.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WATER KOREA행사는 지역주민에게 수돗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상하수도 종사자에게는 기자재전시회 및 세미나, 기능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현장교육의 장, 기술교류의 장, 비즈니스의 장,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하수도 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 조건의 상하수도 종사자간에 화합과 단결 및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타 홍보사업으로 협회지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사업에서는 수도사업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방순회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종사자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공무원 전문선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정수장오퍼레이터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정수장관리사 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과정을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려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하여 추진하는 국제상하수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다가오는 물시장 개방, 수도산업 구조개편, 해외시장개척 등에 국내 상하수도종사자 능력 향상 및 기술연구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⑧ 상하수도관련 국제교류사업은 수도선진국 해외관련기관과의 연결창구 확보 및 교류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수도협회(JWWA), 하수도협회(JSWA), 일본수도기술연구센터와 미국은 수도협회(AWWA), 수도협회연구재단(AWWARF), 하수도협회(WEF)와 유럽은 세계물협회(WA)와 관계를 맺으며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수도협회와는 파트너십을 진행 중에 있고 일본수도·하수도협회와는 연수교류, 전시회행사시 양국 참관단 방문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미국, 일본 전시회에 참관단을 운영하여 상하수도종사자에게 수도선진국 견학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⑨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사업은 결론적으로 ①~⑧에 이르는 모든 사업이 해당이 된다. 국내 상하수도종사자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국민의 생명과 위생에 직결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근무기피 직종이며 자긍심 또한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협회에서는 매년 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을 선정하여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

장관)표창과 협회장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회원의 지역 주민들에게 먹는 샘물을 지원하는 등 급수지원사업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협회발전방안마련을 위한 T/F는 이러한 추진업무의 평가를 토대로 협회가 장·단기적으로 국내외 상하수도에서 담당해야할 업무를 재정립함으로써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3대 설립목적에 꼭 필요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김홍선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13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수도 선진국은 우리 협회와는 달리 협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수도산업에서 기술, 경영, 전시회, 교육, 검인증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T/F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진협회 역할분석과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점사항을 선정하였다.

- 첫째, 업무를 통한 협회 정체성확립방안 강구
- 둘째, 일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구성방안 강구
- 셋째, 조직운영 및 사업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충방안 강구이다.



▲ 협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에 위촉된 위원들

첫째, 업무를 통해 협회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수도법과 하수도법상 국가업무의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협회업무와 연계된 관계법령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관계법령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협회는 국가업무 위탁기관 지정과 정수장오퍼레이터 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 추진, 일반 수도시설 종사자를 의무교육대상에 포함, 수도용 자재 기준개선 등 업무와 관련된 법령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2004년 추진사업의 재조정 및 회원 공통으로 우선 필요한 신규추진사업을 선정하는 논의를 통해 국내 막기술 기준수립 연구,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연구 등 현안과제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회 기관 및 의사결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사무총장제도를 상근부회장과 사무총장제도로 전환하며 사무국 직제는 2개처 중 기술처를 기술지원처와 사업개발처로 분리하여 업무량 확대에 따른 대안으로 조직을 3개처로 개편하였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얼마간은 회원기관의 파견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자체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사회 구성에서는 시·군 회원과 하수도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고 “단체, 기업, 개인 회원 이사선출”은 부회장 8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과 대표성을 고려한 단체, 기업, 개인회원간 구성비를 확정하여 상하수도 전 분야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협회의 재원조달은 수도법 제32조에서 회원이 납부하는 협회비, 사업수입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의 주 세입원은 협회비인데 연간 12억이 납부되고 있으며 연도별 세입예산편성은 2002년 16억, 2003년 24억, 2004년 29억으로 사업수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진



수도협회의 경우 2003년 기준 미국수도협회(AWWA) 320억(회비97억), 일본수도협회(JWWA) 366억(회비46억), 일본하수도협회(JSWA) 314억(회비 88억)의 재정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회비는 대부분 법인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되어지며 기타수입은 사업수입이나 정부예산지원에 의해서 충당되어지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재원확충방안은 회비를 증액하거나 사업수입을 확대하여야 하나 회비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로 T/F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회비산정기준과 “단체, 기업, 개인” 회원의 회비기준 개선, “단체, 기업, 개인” 이사 회비기준 신설 등 방법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으며 사업수입은 회원들이 교육사업, 출판사업, 전시회 사업, 검인증사업 등의 활성화와 많은 회원참여가 관건이라 하겠다.

협회발전방안 마련 T/F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설립 3년차인 협회가 수도 선진국 협회와 같은 역할을 빠른 시간 내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회원의 참여와 적극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유관기관 등과의 중복 업무조정 또한 시급하다. 21세기 세계 물시장에서 우리 수도사업이 수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물시장이 석유시장을 능가하게 되는 전망에서 수도산업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면 한다. ☺